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미루나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미루나무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미루나무

완성된 이름

미루나무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미루나무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버드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줄기는 높이 30미터 정도로 곧게 자라며, 잎은 광택이 난다. 양버들과는 잎의...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美柳나무		
미류나무		
미루나무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버드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줄기는 높이 30미터 정도로 곧게 자라며, 잎은 광택이 난다. 양버들과는 잎의 길이가 나비보다 길고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것이 다르며, 이태리포플러와는 구별하기 어렵다. 3~4월에 꽃이 피고 열매는 5월에 익으며 종자에 털이 많다. 강변,...

🕒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 수록 용례

3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미루나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버드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줄기는 높이 30미터 정도로 곧게 자라며, 잎은 광택이 난다. 양버들과는 잎의 길이가 나비보다 길고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것이 다르며, 이태리포플러와는 구별하기 어렵다. 3~4월에 꽃이 피고 열매는 5월에 익으며 종자에 털이 많다. 강변, 촌락 부근에 풍치목으로 많이 심으며 목재는 젓가락, 성냥개비 따위의 재료로 쓴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미루나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미루나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美柳나무 사전 표기 요약	—	—	—	—	—	● →
미류나무 사전 표기 요약	—	—	—	—	—	● →
미루나무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美柳나무
20세기

- 미류나무
20세기
- 미루나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美柳나무, 미류나무, 미루나무

↳ 미루나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미루나무’는 20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미류나무’로도 나타나고, 한자로 표기된 ‘美柳나무’로도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美柳(미류)’는 미국[美]의 버드나무[柳]를 뜻하는 것으로, ‘미류나무’는 ‘미류(美柳)’와 명사 ‘나무’가 결합한 것이다.

ㄴ 소리과 발음의 특징

이후 제2음절의 모음 ‘ㅍ’이 ‘ㅌ’로 바뀐 ‘미루나무’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미루나무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美柳나무, 미루나무, 미류나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美柳나무, 미루나무, 미류나무

출처 1926 동아일보 7월 12일 4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鬱蒼한 美柳나무 그늘 밑으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7 조선일보 10월 28일 5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한 아름이나 되는 미루나무를 씹다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9 조선일보 11월 6일 5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일남이는 녘해 섰는 미류나무에 못는 듯이 이럿케 중얼거렸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미루나무의 보충 설명

‘미루나무’는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정하여 ‘미류나무’ 대신 표준어로 정해졌다.

미루나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미루나무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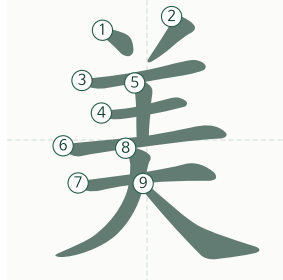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美

뜻·음 아름다울 미

총 9획 · 부수 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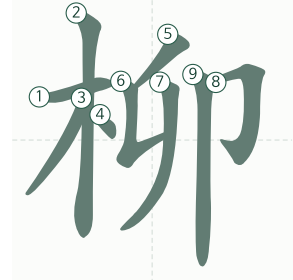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美/

柳

뜻·음 버들 류

총 9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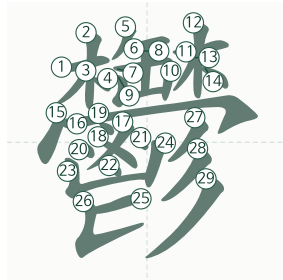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柳/

鬱

뜻·음 답답할 울

총 29획 · 부수 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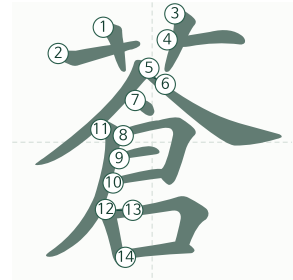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鬱/

蒼

뜻·음 푸를 창

총 14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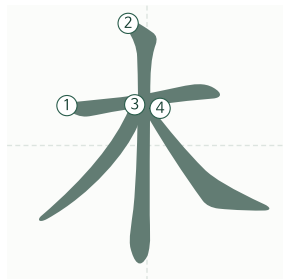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蒼/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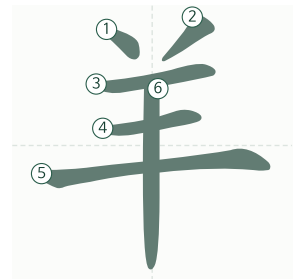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木/

羊

뜻·음 양 양

총 6획 · 부수 羊



hanja.wordrow.kr/한자/羊/